

“집중된 마음자리서 열심히 공부하라”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금강대 신입생 전원에 장학증서 전달

천태종(총무원장 정산)이 2월 19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2009학년도 금강대 신입생 전원(105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18~19일 산사수련회를 열었다. 종단 차원에서 금강대 신입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것은 2003년 첫 신입생을 받은 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장학증서는 종정 도용 스님이 직접 수여해 눈길을 끌었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이 금강대 신입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금강대 관계자와 신입생 8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금강대 장학증서 수여 법회’에서 종정 도용 스님은 “배우는 과정은 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정신 집중된 마음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도 “스스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안주하지 말고 자기발전에 더욱 힘쓰며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김동명·김주영·위지훈·장진원 학생이 성적우수자로, 강완형·강은지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았다.

천태종이 신입생 전원에게 약속한 1년 등록금은 총 3억5000여 만

원이며, 장학금은 천태종 중창조 상월 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설립된 원각불교장학재단(이사장 도용)이 지급한다.

한편, 법회에 앞서 금강대 신입생 89명은 1박 2일 일정으로 구인사 체험 프로그램 천태종과 금강대의 ‘아

름다운 동행’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불교 인재 양성에 앞장서 온 천태종이 금강대 학생들의 학업성취 의욕을 강화하고, 불교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행사의 실무를 담당한 천태종 교육과장 진성 스님은 “종교편향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불교계에 인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는 인재로 성장할 금강대 학생들이 중단의 고마움을 느끼고 실행체념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18일 구인사에 도착한 후 천태종 및 구인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절 교육도 받았다. 또 설법보전, 역대조사전, 대조사전, 적멸궁 등을 둘러봤다. 특히 저녁에는 천태종의 주요 수행법인 관음정진 수행을 체험하고, 19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예불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박석현 학생(교양학부)은 “새벽에 일어나 아침

예불에 참가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금강대를 모르는 이도 많아 많은 걱정을 했지만, 장학금 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된 만큼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현일 학생(일어통역 및 통상통역학)도 “개신교라서 처음에는 수행이나 절하는 것 등에 많은 반감을 느끼고 일벌말하기도 했지만, 1박 2일 동안 사찰 체험을 하면서 반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2002년 11월 개교한 금강대는 수능성적 1·2등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학을 엄격히 선발하는 등 우수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인재발사를 위해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고, 전교생에게 2인 1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졸업생들이 미국 조지타운대, 일본 와세다대 등 해외 명문대학원에 진학하고, 행정고시합격 등으로 정부 각 기관에 진출해 불교 인재 양성의 새로운 요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태고종 새 틀의 주인 되길”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 및 전법사 교육원 수료법회



2월 16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봉행된 제1기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2월 16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제1기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 및 전법사교육원 수료법회’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 중앙승가전문강원장 보경 스님, 중앙초심원장 청봉 스님, 교류협력실장 법현 스님 등 8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중앙승가전문강원 졸업식에서는 강원에서 지난 2년간 교과과정을 이수한 강원스님 60명이 졸업했다. 또한 졸업생 가운데 수행교화 활동에 모범이 된 해화·대선·일봉·정인·혜중·자오·혜득 스님에게는 표창장이 수여됐다.

운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행과 공부를 마쳐 총무원장으로서 감사함을 느낀다”며 “오늘 졸업하신 분들이 앞으로 태고종이 새롭게 만들어갈 틀의 주인이 돼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승가전문강원장 보경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전담에 오곡을 심어 농사를 짓고 살아가지만 수행자는 마음의 밭에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며 “졸업 후 총무원의 직책을 맡게 된다면 선한 마음으로 본분의 일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봉행된 제1기 전법사교육원 수료식에서는 35명의 전법사들에게 수료증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태고종은 중앙승가전문강원을 초심사집, 사교, 대교의 5년과정 승가대학으로 확대개편하고, 명칭을 법륜승가대학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태고종 총무과장 철오 스님은 “법륜은 부처님의 참된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전해짐을 상징한다”며 “앞으로 법륜승가대학은 보다 차별화된 승려교육으로 부처님의 교법이 널리 흥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불교문화창달에 정진하길”

옥천범음대학 졸업·수료식 봉행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이 2월 13일 봉원사에서 제13회 졸업식 및 수료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옥천범음대학장 일운 스님(봉원사 주지·영산재보존회장), 영산재보존회 총재 구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총 79명(졸업 26명, 수료 53명)이 졸업·수료 증서를 받았다.

옥천범음대학장 일운 스님은 인사말에서 “졸업은 다른 의미에서는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영산재 이수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불교문화창달을 위해 새롭게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도 축

사를 통해 “오늘 졸업·수료하신 모든 분들이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갖고, 인연의 소중함으로 나날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범음대학은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의 향상·계승을 위해 1994년 9월 설립돼 어산, 범패 학습을 다수 배출하는 등 불교의식 교육기관의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표창장=진관·명규 스님(이상 영산과) △공로상=지허·대석·기연 스님(이상 영산과) 자운 스님(각배과), 선주 스님(작법과), 진원 스님(연구과) △공로상=지허·대석·기연 스님(이상 영산과), 자운 스님(각배과), 선주 스님(작법과), 진원 스님(연구과)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다문화가정 위한 근본 사찰로 거듭날 것”

명락사, 신입주지 무원 스님 ‘대중 속 사찰’ 다짐

천태종 서울 명락사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근본 사찰로 거듭난다.

명락사 신입주지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부장은 2월 15일 주지 취임 법회에서 “애국·생활·대중불교 실현을 통해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대중 속의 명락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지원의 역량을 다졌다.

무원 스님은 황룡사 주지소임 시절 새터민 템플스테이와 다문화가정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등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한국다문화센터의 자문위원장으로 “다문화 자녀와 대학생 1:1 멘토링”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자녀 장학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취임법회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은 명락사가 희망적인 불사의 출발점에 서는 기쁜날”이라며 “명락사에 마련될 생활불교의 전당은 생활·실천불교



무원 스님(사진 왼쪽)이 명락사 前 주지 화산 스님으로부터 직인을 전달받고 있다.

에 성큼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도 축사를 통해 “명락사가 모든 국가의 불자들이 행복하게 방문할 수 있는 다문화 본원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원 스님은 1979년 천태종 2대

종정 대종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후 주요 사찰 주지로 재임하는 동안 13개 사찰 불사를 주도했다. 또한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를 원단 회화하고, 남북 불교도 최초로 낙성대법회와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남북 불교교류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김진성 기자

진각종 공작명왕 속초불축제에 ‘초대’

진각종(총리원장 회정의 장엄물청·황 공작명왕(孔雀明王)이 속초 시민들에게 그 모습을 선보였다.

진각종은 강원도 속초시불축제 위원회가 2월 6~14일 개최한 ‘2009속초불축제’에서 장엄물 공작명왕을 전시했다. <불모대공작명왕>은 공작명왕이 ‘악귀를 없애며 재앙을 물리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설명한다.

장엄물 공작명왕은 이전에도 연등축제와 각종 지역축제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진각종의 대표 장엄물

로 날개를 움직이고 입에서는 화염을 뿜으며, 꼬리를 집었다 폈다 하는 등의 정교함으로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왔다.

속초불축제는 희망과 정열의 상징인 불과 함께 기속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길 바라는 의미로 청초호와 청초호유원지 일대에서 열리는 행사로 이번 행사기간에는 체험 프로그램, 전시, 공연, 경연대회, 불업행사, 거리 페스티벌 등이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0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9년 3월 11일까지 ◆ 개강일시 : 2009년 3월 12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SHC 삼환양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귀의 삼보하움,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양초전문 기업 삼환양초는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최고의 상품만을 공급하여 드립니다.

• 신상품 : 실내용양초 - 밀암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문의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영리 35-16
소재지 무료전화 :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